

# 중년남성 수트디자인에 따른 연상디자인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박순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20~5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중년 남성의 의복디자인에 따른 시각효과를 연상디자인적인 면에서 고찰하여 중년남성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의복디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중년남성의 체형을 균형화 시키는 연상디자인 시각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신사복 정장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중년남성이 외출복으로 착용하는 정장스타일의 수트를 선정하여 의복디자인의 형태구성요인이 다르게 조합된 연상디자인 시각효과를 분석한다. 그리하여 체형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의 형태구성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중년남성들이 표출하고 싶은 시각적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체형에 대해서 적절하며 또한 효과적인 의복디자인을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소재에 따른 시각적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소재별 시각효과, 여밈 및 단추 수의 변화, 체형에 따른 시각효과와의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남성 양복착용에 대한 연상디자인 시각효과의 차원을 밝힌다.

둘째, 인구통계적 요소에 따른 연상디자인 시각효과의 차이를 규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20~5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중년 남성의 의복디자인에 따른 시각효과를 연상디자인적인 면에서 고찰하여 중년남성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의복디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및 단추 수에 다른 연상디자인의 차이는 매력성과 친근함은 남자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젊음성, 현대성에서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남성성의 경우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연령 및 단추 수에 따른 연상디자인 시각효과의 차이를 보면 매력성의 경우 50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20대, 30대, 40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성별 및 체형에 따른 연상디자인은 매력성의 경우 남녀 모두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젊음성은 남자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대성 및 남성성은 체형에 따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친근함은 남자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연령 및 체형에 따른 연상디자인의 차이를 보면, 매력성의 경우는 20, 30, 40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50대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젊음성은 체형에 따라 30대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20, 40, 50대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대성은 체형에 따라 20, 30, 50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0대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성은 체형에 따라 연령의 전체 4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성별 및 소재무늬에 따라 매력성, 젊음성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현대성, 친근함, 남성성은 남자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 연령 및 소재무늬에 따라 매력성은 20대, 40대, 50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젊음성은 20, 30, 40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대성은 소재무늬에 따라 30, 40, 50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친근함은 소재무늬에 따라 20, 50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성은 소재무늬에 따라 30대와 50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연상디자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중년남성 정장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상황과 목적에 알맞고 개성 및 기호를 고려하여 착용되어진다면 체형을 균형감 있고 매력적인 분위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